임원십육지의 상택지를 중심으로 한
(林園十六志의 相宅志를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17C～19C) 건축계획론에 대한 연구

金鴻植
<明知大學校 副敎授>

Ⅰ. 머리

1. 연구의 목적

사람이 머무르는(주(住))공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살림집이다. 이것은 근대를 지향하면서 주생활의 질적향상, 공간의 확대, 도시에의 집중, 건축 생산재료 기술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여러 방면으로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푸는 실마리는 보다 근원적인데 뿌리한다고 보며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데 근거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실마리 중 하나는 주생활의 변천사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형상화하는 방법론으로서 건축계획론(양택론(陽宅論))은 큰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주생활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것을 담는 방법론으로서의 건축계획론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에 내재한 흐름(운동)을 발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건축계획(방법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실학파 중의 한 사람인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중 상택지(相宅志)를 분석・이해함으로서 현재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서구의 건축계획론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의 새로운 건축에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한다.

2. 건축 철학사, 건축 사상사, 건축계획론사에 대한 기초시각

우리 나라에 아직 건축 사상사, 더 나아가서는 건축 철학사를 막론하고 건축계획론사까지 조금도 정리된게 없다. 변천・흐름이라는 의미의 역사 뿐 아니라 단순한 건축사상, 철학 계획론까지도 단편적인 몇 개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물론 단편적인 것이 모아져서 역사(흐름・변천)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문제점은 그것을 변

천하는 것으로만 보는 기초 시각이 없이 단순한 과거의 전통적인 면으로만 보는 사실이 있다.

건축 사상이라고 한다면 건축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건축 생산의 방법에 대한 것, 구조・재료의 선택에 대한 것, 생활 방식에 대한 것, 등 건축에 대한 속신(俗信)까지를 모두 망라한다. 건축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건축에 대한 생각(건축사상)은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주장하는가에 대한 논술의 정리이다. 전자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분히 전문가의 영역이다. 예를 들면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가 벽돌 사용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건축 사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건축 철학의 분야이다. 사람의 살림집은 욕망이 한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혹은 그 이하에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것은 건축 철학이다. 전자는 광범위한 것이고 후자는 그 범위가 축소된다. 따라서 아직 건축 사상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때, 건축 철학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건축 계획론이라고 하면 이들과는 조금 다르다.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의 주장이므로 사용 학문으로서의 건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 사상의 한 부분이면서 건축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번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이에 대해 양택론(陽宅論)이란 이름으로 비교저 잘 정리해 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연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변천해 왔으며 변해 간다는 기초 시각을 바탕으로 하며 가깝고 쉬운 것으로부터 차츰 정리하여 언젠가 우리나라 건축 사상사 내지는 건축 철학사가 정리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3. 17～19세기 건축 계획론에 대한 개설

(1) 민중의 건축 계획론

17～19세기의 건축계획론이라 한다면 당시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양택론(陽宅論)내지는 그것을 포용하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이것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맹렬히 비난하던 지식인—실학파(實學派)—들의 이론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광범위한 양반들의 확대, 민중들의 경제적 잉여의 축적, 일반 교육의 확산, 각종 도서의 발행으로 말미암아 지리서(地理書) 정도는 아무라도(민중(民衆)) 읽을 수 있었으므로—오히려 지식인들의 합리적 주장은 집권자의 편에 서며, 반면 민중은 그들의 의사를 통제된 언론 가운데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책들—예로서 정감록(鄭鑑錄)—은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이와같은 비결(秘訣)류를 제외하고, 건축 계획론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은 대략 풍수지리서(風水地理書)라고 하는데 모아진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집(묘지)을 다루는 음택론(陰宅論)과 산 사람의 집을 다루는 양택론(陽宅論)으로 나누어지는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술은 음택론(陰宅論)에 대한 것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통제되었던 것으로 믿어지며 대부분 필사본이 많고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지금 우리의 눈에 띄는 순서로 본다면 역시 필사본이 가장 많고 다음에 중국책이며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의 저술로 생각되는 목판본이 약간 있을 뿐이다. 필경 이들의 교육은 대부분 간단한 필사를 통한 구전(口傳)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약간의 책을 읽었으리라 추측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잘 알려진 책을 몇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청조경(靑鳥經), 청낭경(靑囊經), 지리대전(地理大全), 지리육법대전(地理六法大全), 지리정종(地理正宗), 지리정학(地理正學), 지리진경(地理眞經), 설심부(雪心賦), 직

지원진경(直指原眞經), 옥수진경(玉髓眞經), 인자수지(人子須知)등 대부분 중국에서 간행되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내용은 선험적(先驗的)이고 신앙적(信仰的) 요소가 짙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음택론(陰宅論)내지는 풍수지리(風水地理) 전반에 대해서는 수많은 책이 나돌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저술이 알려져 있지만 양택론(陽宅論)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용학문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중국책이며 민중들에 의해 쓰여진 책은 별로 없다. 이들 가운데 잘 알려진 몇 권의 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양택대전(陽宅大全), 양택대성(陽宅大成), 양택집성(陽宅集成), 양택대집(陽宅大集), 양택십서(陽宅十書), 양택요전(陽宅要典), 택보지요(宅譜指要), 택보이언(宅譜邇言), 팔택명경(八宅明經)등 다수가 있다.

양택서(陽宅書) 중 우리나라 사람의 저서로는 (선계(銑溪)) 노한용(盧澣容)의 택보요전(宅譜要典)과(1930? 목판본으로 출판 연도가 불확실함) 손유헌(孫瑜憲)의 민택삼요(民宅三要)(1929) 및 박래린(朴來麟)의 양택요결(陽宅要訣)(1935)이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들이 모두 20세기 이후 출판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당시 이 사회에 팽배했던 민족주의의 기운을 타고 어느 정도 가능했던 출판의 자유에 힘입어 간행되었으리라 믿으며 그 이전에 이런 책들이 없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과문 탓으로 여겨진다. 이들 책의 특징은 중국과 다른 우리 민가에 맞는 양택론(陽宅論)을 써보자는 것이고(민택삼요(民宅三要)), 지리서(地理書)가 너무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민중들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응용하기 쉽게 원리를 제쳐놓고 쓴다는(택보요전(宅譜要典))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의 내용은 알기 쉽게 하느라고 지나치게 도식적(圖式的)이며 또한 상징적・주술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

(2) 실학파(實學派)의 건축 계획론

실학파의 실용학문에 대한 관심은 건축 계획에도 나타난다. 이들의 생각은 대단히 합리적인 유학(儒學)—아마도 유학(儒學)처럼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학파도 없을 것임—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풍수지리설의 주술적이고 상징적인 논리는 배제되고 다분히 근대 여명기적인 합리적 건축론이 정리된다. 그들의 생각은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관정(官政)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에 현실성을 가진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

이에 대한 유명한 저서로는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1715), 같은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와 이중환(李重煥)(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일명 팔성가거지(八城可居志)) 및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이 중 상택지(相宅志))가 있다. 산림경제(山林經濟)는 실학파 권기의 저서로서 “복거(卜居)”조(條)에 당시의 건축 계획론에 대한 단편적 지식들이 정리가 좀 덜된 채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택리지(擇里志)는 건축계획 뿐만이 아니고 국토계획이라는 측면에서까지 가장 잘 알려진 저술로서 인문지리적(人文地理的) 성격을 띠는 훌륭한 저서이다. 특히 내용 가운데 사람은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제적 측면(생리(生利))을 강조하는 바 이전의 어떤 저술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다.

끝으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상택지(相宅志))는 위의 두 저술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내용을 매우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산림경제(山林經濟) 자체가 많은 저술을 인용한 글이지만,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책을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췌지비집(金萃知非集), 작비암찬(昨非庵纂), 한정록(閒情錄), 주서비오(周書秘奧), 영조택경(營造宅經), 고사섭요(攷事攝要), 거가필용(居家必用), 김췌경독기(金萃耕讀記), 양택길흉론(陽宅吉凶論), 보생요록(保生要錄), 규차지(睽車志), 지리신서(地理新書), 음양서(陰陽書), 태서수법계(泰西水法係), 생요록

(生要錄), 전가택(傳家宅)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와같은 책을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누구의 저서이며 어느 시기의 저술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책들을 발굴하여 연구함으로서 한국의 건축 계획론사를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다르게 획당(獲堂)의 풍수집의(風水集議)등의 저술이 있는바 이는 주로 장론(葬論)으로서 본 건축 계획론과는 분야가 다르므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Ⅱ. 몸글

1. 집터 잡기(점기(占基))

전체적으로 택리지(擇里志)의 내용과 차례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첨가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내용 가운데 생리(生利)는 생리(生理)로, 인심(人心)은 이인(里仁)으로, 산수(山水)는 승개(勝槩)로 용어를 바꾸고 택리지의 지리조토색(地理條土色)을 따로 독립시켜 수토(水土)로 설명하는 것 등은 그들 상호간의 보는 관점이 약간 상이함을 의미한다. 특히 피기(避忌)조를 신설한 것은 당시 민중들이 믿었던 속신(俗信)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1) 총론(總論)

마을을 계획하는 데는 중요한 4가지 조목을 고려해야 하니(복거사요(卜居四要)) 땅의 흐름(地理), 경제(生理), 사회생활(人心), 자연경관(山水) 등 4가지이다. 땅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곳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마을에서는 오래 살 수 없으며 주민의 사회적 관계가 성숙하지 못하면 —市民意識의 결여—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다. 만일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두지 못하면 사람의 성품(性情)을 닦질 못해서 거칠어진다. (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

마을 공간을 구성할 때는 주어진 자연환경—비바람, 빛볕(風氣의 藏聚)과 인간의 시각 심리적 안정감으로서의 공간감(面背의 安穩)을 살펴야 한다. 이것을 잘못하면 부질없이 마을을 건설하는 공력만 허비할 뿐이다. (산림경제보(山林經濟補))

마을의 산은 높되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낮더라도 지나치게 무너져서는 안된다. 들(坪)은 넓어서 볕 바라야 하며 밭(園)은 두루 안아야 한다.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말며 검소하되 누추해서는 안된다. 나무는 오랠수록 좋고 우물은 새로 자꾸 고쳐야 (潔)한다. (六欲) 집 주위에는 채마를 심을 수 있는 텃밭을 두루고 바깥에는 곡식을 심는 논밭을 배치한다. 주위에는 냇가가 있어서 고기잡고 관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밖으로 산마루가 두루고 산봉우리가 있어서 빼어나게 아름다워 바라볼만하면 좋다. 또한 마을 안팎에는 이웃 수십·수백호가 있어서 防災할 수 있어야 한다. (六有)·(김화지비집(金華知非集))

(2) 땅의 흐름(地理)

① 마을의 영역

삶의 터전은 우선 주위환경을 살펴야 하는 바 수륙(水陸)으로 교통이 통하는 곳이 우선인까닭에 뒤로 산을 등지고 안으로 호수를 바라 보는게(背山面湖) 좋다. 그러나 반드시 너르고 크면서도 (寬大) 짜임새있고 긴밀(緊束)해야한다. (한정록(閒情錄))

살림집은 높고 깨끗해야하므로 앞으로는 평탄하고 좌우는 긴박하지 않아서 넓고 화창해야 한다. (故事撮要) 한 오름·한 물(一山一水)은 정이들어 이쁘장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며 지형과 지세가 굵직굵직해야 영역(局)을 크게 맺혀 오래 살 곳이 된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

林經濟))

② 마을의 자리(野勢)

사람은 陽明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니 햇빛이 조금 보이는 곳에서는 살수가 없다. 따라서 들이 더욱 넓어야 집터는 더욱 아름답다. 가장 꺼리는 것은 사방 산이 높아서 해가 늦게 나왔다가 일찍 지고 혹 북두칠성도 바라보이지 않는 곳이니 귀신이 많으며 아침 저녁의 안개와 음산한 기후는 사람을 병들기 쉽게 한다. 이런 까닭에 골짜기에서 사는 것은 들에서 사는 것만 같이 못하다. 큰 들 가운데 조그만 산이 둘렀더라도 이것은 산이라 하지 않으며 모두 들이라 칭한다. 왜냐하면 하늘 빛(天色)이 바람(風氣)에 막히지 않고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만약 높은 산가운데서도 넓게 열린 곳이 모름지기 집터자리가 된다. (八域可居誌)

산골의 집터는 사방이 둘러 호위하고 水口가 교차하여 굳으며, 비고 떨어지고 들어가고 숨지않아서 산자락에 힘이 있어야 한다. 집자리는 비록 산골이라도 평탄한 못 같아서 열려 퍼지고 너르며 평탄해야 한다. 만약 좁고 낀다면 좋지 않으니, 사방 산이 높아서 누르고 그윽하며 음침해사, 해・달・별 빛을 핍박하고 막는 것을 가장 꺼린다. 또한 물이 집 뒤를 치고 회오리바람(凹風)이 어깨를 쏘거나 물소리가 졸졸거리는 것은 좋지 않으며 아늑한 (藏風)곳이 최고다. 그러나 무엇보다 꺼리는 것은 망령되어 굴착해서 넓힘으로서 기맥(氣脈)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한번 바라보면 끝이 없는 평탄한 곳이라도 집터가 있으니 터가 우리 땅보다 높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높다는 것은 다만 한 자(尺) 혹은 두어 치(寸)라도 높은 걸 말한다. 그러나 한 결같이 평평한 땅 가운데 높은 둔덕은 護衛하고 照應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바른 기운(正氣)의 맺은 비가 아니므로 비록 높더라도 좋지 않다. 이런 곳은 절이나 당집(神宇)을 지으면 음험이 많을 것이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③ 공간감(水口)

집터는 먼저 물목을 봐야하니 물목이 엉성하고 널다랗기만 한 곳은 비록 좋은 밭과 큰 집이 있다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좋은 터를 찾으려면 반드시 물목이 닫혀지고 안으로 들이 펼쳐지는 곳에 착안해야 한다. 그러나 산골에서는 폐쇄된 곳을 얻기가 쉽지만 들 가운데서는 주밀한 곳이 어려우니 반드시 큰 물의 흐름에 거슬러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된다. 높은 산과 욱은 언덕(陰阪)이 힘있게 거꾸로 흐르고 가로막아서 局(집터의 영역)에 당하면 좋다. 이것은 한겹도 좋은데 여러겹이면 오래도록 살 터가 된다. (팔역사거지(八域司居誌))

물목이 꼭 닫힌 듯 해야하는 것은 물이 달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물목에 둥근 오름과 흙언덕이 있는 것을 羅星이라 이르니 흙은 돌보다는 못하다. 돌의 형상이 새나 짐승같은 기묘한 怪石으로서 머리가 거꾸로 위를 향하고 꼬리는 휘감아 아래로 내리면 크게 좋다. 그러나 羅星 집에 너무 가까우면 해가 있으니 멀리 떨어져야 무방하다. 물 가운데 삼각주(沙洲)가 있어 머리를 상류로 거슬려서 하나이면 큰 부자이고 셋이면 또한 좋다. 홀연히 물목에서 보이면 가장 좋은데 만약 낮다면 貴하진 않다.

④ 산의 형상

祖宗山은 다락집처럼 날아 올라가듯 해야하며 주산(主山)은 빼어나 아름답고 단정, 청명하며 아담한 것이 가장 좋다. 뒷산이 면면히 들을 건너다가 홀연히 일어나 높게 큰 봉우리를 맺고 산 가지가 둘러 골판(洞府)를 만들므로서 고을 안에 들어 온 것 같은 모양 및 주된 형세가 두껍고 풍성해서 높은 중층집 같은 것이 다음이다. 사방 산이 멀리 떨어져 평이하게 두르고 산의 맥이 떨어져 내려 평지에서 물을 만나며 곧 그쳐서 들의 기틀이 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가장 꺼리는 것은 들어오는 산 줄기(來龍)가 희미하고 둔하면서 생기가 없거나 혹 부서지고 비뚤어져서 길한 기운이 적은 것이다. (팔역사거지(八域司居誌))

집 앞 산의 형상(砂應)은 뾰쪽하여 빼어나고 단정하게 둥글며 튀어난 붓이거나 노적가리 형상이면 대단히 좋다. 반면 머리가 엎어지거나 꼭대기가 기울어지고 외롭게 빛나면 나쁘다(陽宅吉凶論). 말하자면 매일 바라보이는 산의 형상은 사람의 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관 요소가 된다. 앞으로 바라보이는 산(朝山)은 멀면 맑게 빼어나고 가까우면 밝게 깨끗해서 한 번 보아 기쁘면 좋다. 반면에 추악한 돌 봉우리, 비뚤어지고 외로운 봉우리, 무너지는 모양, 넘겨보는 자태, 혹은 이상한 돌·괴이한 바위가 산 위나 아래에서 보이던가, 긴 골짜기에 부딪치는 형상(冲砂)가 사방에 보이는 등, 울퉁불퉁하고 밉살스런 형상이 보이는 산(朝山)은 좋지 않다.

⑤ 물이 흐름(水理·放水)

무릇 물은 집과 묘가 모두 보는 법이 같다. 물이란 양양하고 유유하고져 하는 것이니 저수지에 머무는듯 하다가 뒤에 빠져서 첩첩쌓인 논(水田)이 바다의 들락거림보다 낫다. 집 앞에 모두어 펼쳐지고 혹은 背後를 대해 둘렀다면 가장 좋은 형상이다(貴格). 만약 가득한 저수지가 등을 치고 어깨를 쏘며 옆구리를 파거나, 혹은 면전에 당해서 바로 가거나, 또는 비껴 달리고 도리켜 도망하고 똑바로 나가는 것 등은 모두 나쁘다. 물소리는 (珥) 개구리가 우는 것 같으면 좋지만 처절하거나 졸졸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 물이란 財祿을 관장하는 까닭에 큰 물 가에는 부자들이 많고 이름난 마을이 번성하다. 산골에서도 시냇물이 모이는 곳만이 바야흐로 오래도록 살만한 땅이 된다(增補山林經濟). 산은 配水를 근본으로 한 뒤에 化生의 묘를 얻는 것이니 물은 반드시 오고가는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한다.

물은 재록을 의미하므로 그것의 배출 방위를 무척 조심하는 속신을 갖는다. 12支 12방위의 間方은 집의 향과 물의 나가는 방위에서 서로 꺼려하는 것이 있으니 동북, 동남, 서북, 서남(艮巽乾坤)은 그에 속하는 다른 사이 방위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의 12방향은 꺼리지 않는다.(정사촬요(政事撮要))

▲ 陽 ◦ 陰 ○ 8路黃泉 □ 4路黃泉殺

〈八路 黃泉과 四路黃泉殺표〉

向	庚丁, 坤	乙丙, 巽	甲癸, 艮	辛壬, 乾
水	坤, 庚丁	巽, 乙丙	艮, 甲癸	乾, 辛壬

▲ 양(陽) o 음(陰) ○ 8로황천(路黃泉) □ 4로황천살(路黃泉殺)

<팔로(八路) 황천(黃泉)과 사로황천살(四路黃泉殺)표>

향(向)	경정(庚丁),곤(坤)	을병(乙丙), 손(巽)	갑계(甲癸), 간(艮)	신임(辛壬), 건(乾)
수(水)	곤(坤),경정(庚丁)	손(巽), 을병(乙丙)	간(艮), 갑천(甲癸)	건(乾), 신임(辛壬)

집안의 배수는 물길이 문을 채우면 자손에 해로우니 물이 집에 부쳐지나 동쪽으로 흘러야 화가 없다. 물이 거슬러 들어오거나 문을 쫓아 나가면 주인이 바뀌거나 가난하고 흩어진다. (居家必用). 곧 집안의 물은 집 뒤로 빼되 앞의 물이 거슬러 들어 와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지붕의 물이 서로 교차되거나 구조체에 부딪쳐도 좋지 않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조아리는 물(朝水)은 물 바깥의 물이니, 적은 시내와 개천은 거슬러 들어와야 좋고 큰 내와 큰 강물은 거꾸로 받아서는 불가하다. 큰 물을 거스르는 것은 집터와 묘를 막론하고 처음에 발흥하다가도 오래되면 패멸하지 않음이 없다. 반드시 구부러지고 느긋하게 끌어서 조아려 와야 하며 바로 쏘는 것 같아서는 안된다.

⑥ 집터의 짜임새

왼쪽에 흐르는 물(靑龍)과 오른쪽에 기다란길(白虎), 앞에는 연못(朱雀)과 뒤에 언덕(玄武)이 있는 것을 四象이라 하니 이 모두가 갖추어져야 貴地가 된다.

살림집과 무덤은 비록 陰陽의 구별이 있지만 山川과 風氣가 모으고 흩어지는 것을 논할 때는 그 근본 이치가 같다. 다만 구분되는 것은 산마루(龍)의 머리에 이르는 것이니 팔다리가 열리면 집터이고 모두면 무덤자리이다(增補山林經濟). 바람은 어느 방위에서 불어오나 거세면 좋지 않다. 또한 회오리바람(凹風)이 불어오면 생기(氣)가 흩어진다. 바람이 왼쪽에서 들면 큰방(長房)이 빠지고 오른쪽으로 들면 작은방이 이그러진다. 바람이란 모두 꺼리고 피해야 한다.

집터는 평탄하거나(梁土) 뒤가 높고 앞이 낮으면(晋土) 좋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면(魯土) 특히 좋으며 가운데가 낮으면(衛土) 처음은 부하지만 나중에 가난해진다. 집터의 모양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아야 좋으며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으면 처음은 나쁘고 나중에 좋아진다. 집터는 건조하지 않고 潤澤해야 된다(영조택경・주서비오(營造宅經・周書秘奧).).

집터는 북을 등지고 남쪽을 면해야 가장 좋으며 다음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것은 동으로 앉고 서를 향하는 것과 북을 향하는 것이다.

(3) 흙과 먹는 물

집터 자리는 먼저 흙과 (먹는)물을 살펴야 된다. 샘이 맛있지 않으면 사는데 병이 많고 흙이 기름지지 않으면 생물이 이루질 않는다(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흙이 두껍고 물이 깊으면 사는데 질병이 없으니 흙은 단단하여 윤이 나고 누런게 좋으며 물은 맛있고 깨끗해야 한다. (계생요록(係生要錄))

지반을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의 몇가지가 있다. 집터 위의 겉흙을 제거하고 생토를 드러내고 그 면을 고르게 한 다음, 네모・깊이 1.2자 되게 판다. 판 흙을 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들인다. 누르지 말고 이튿날 일찍 봐서 흙이 들어가면 좋지 않고 부풀었으면 좋다. 혹은 흙의 무게를 달아보는 방법이 있다. 1말을 달아서 10근이면 위이고 9근이면 보통이며 8근이면 아래이다. 또는 1치 입방의 흙을 달아서 9량 이상이면 대단히 좋고 5량~7량이면 괜찮지만 3량이면 나쁘다(양택길흉론(陽宅吉凶論)).

마을은 산골이나 물가를 막론하고 모래질 흙이 단단하고 밀실하면 샘과 우물이 깨끗하고 맑아서 가히 살만하다. 만약 붉은 진흙, 검은 자갈, 누런 가는 모래(黃細)는 죽은 흙이니 그곳에서 나온 샘과 우물은 반드시 병이 있다.

산을 보면 샘을 알 수 있으니 산이 두꺼우면 샘이 두껍고, 산이 기이하면 샘도 기이하다. 산이 깨끗하면 샘이 깨끗하며 산이 그윽하면 샘도 그윽하니, 이 모두가 아름답다. 또한 산이 깊의 두꺼우면 웅대하더라도 기(氣)가 수려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곳은 반드시 아름다운 샘이 없다. 우리나라의 이름 난 샘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金華耕讀記) 풍로병(土瘴之毒)은 흙과 먹는 물에서 오는 바, 어떤 병보다도 독해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점점 폐나 위에 쌓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이 된다. 이것은 남녀와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오는 바 오랜 시일을 두고 무서운 증상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을 통해 의사의 처방은 흙과(먹는) 물에서 생기는 병에 대한 것은 없으며 지식인의 글에도 유독 풍토병에만은 미치지 않고 있다. 오직 사람은 꺼리고 피하기만 한다. 지역 안에 풍토병이 있는 곳을 보고들은 대로 적으면 대략 다음과 같다. 다음은 생략(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4) 경제(生理)

집터는 의당히 농사가 잘 되고 상업에 편한 곳이어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아가고 죽는데까지 재물이 필요하니, 재물을 얻는 길은 흙이 기름진게 첫째이고 배와 수레로 상품을 유통시키는게 다음이다. 상품의 유통에 있어 말은 수레만 못하고 수레는 배보다 못하므로 집터가 강이나 바다 가까이 있어서 각종 배들이 통하는 곳이거나 큰 고을에 통해서 재화가 흘러 모두는 곳이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술책이 된다.(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

우리나라는 동서남이 모두 바다로서 배가 통하며 뱃상인들은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 이윤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집터는 반드시 뱃길이 멀지 않은 곳을 가려서 잡아야한다. 상업이 활발하면 인생살이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배 무역(船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한강은 크고 근원이 멀어서 첫째이고 다음은 은진・강경으로서 충청・전라 2도와 땅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한강에 뒤지지 않는다. 셋째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김해칠성포(金海七星浦)이다. (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

옛 어른들은 집터를 고를 때 먼저 논밭(田地)을 살폈으니, 뭍의 상인이 고을안에 살아서 천금을 모았더라도 오히려 좋은 농사 때문이라고 말한다. 착하지 않게 재물을 모으면 천만금이라도 끝대 지탱하지 못한다.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5) 사회 생활(里仁)

풍속이 그릇된 곳을 가리지 아니하면 다만 자신이 나쁠 뿐 아니라 자손을 더럽히는 걱정이 있다(八域可居誌). 집은 먼저 이웃을 가리는게 필요하니 孟子 어머니가 세 번 옮긴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이 있다. 순박하고 선량한 시골에 살면서 德을 칭찬하는 이웃 및 仁을 칭송하는 마을과 화합해 산다면, 많은 즐거움・편안함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풍속이 좋지 않은 다음 곳은 피해야 한다. 종교건물(寺廟神佛)의 곁, 높은 벼슬아치나 부자집의 옆, 앞뒤에 큰 강이 가까운 곳, 가난한집(艸房)이 모두는 곳, 움집에 사는 이가 있는 곳(窩訪)이 흉폭한 곳, 술집・배우가 섞여 사는 곳, 젊은 과부・방랑한 아이들 사는 근처 등이다(傳家寶). 상품이 모아져서 시정(市井)이 이익만을 다루는 곳은 번화함(熱鬧)이 민속을 눌러서 아름답지 않게 된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즉 사치스런 풍속에 민속이 물든다고 할 것이다.

(6) 자연경관(勝槩)

높은산과 급한 물, 험한 계곡과 놀랠 여울은 한때의 관상할 즐거움 뿐이라, 절 등의 종교건물은 괜찮지만 대대로 전할 집터는 되지 않는다. 들의 고을 가까이에 개울이나 강이 있는

산이 있어서 넓고 밝아 아름다우며, 깨끗하고 그윽해 우아하며, 높지 않아도 빼어나고 크지 않아도 깨끗하며, 혹 기이한 바위와 빼어난 돌이 있더라도 음침하고 어긋난 자태가 없다면 엄험한 기운이 모둔 곳이다. 이런 곳이 이름난 고을과 마을이 있을 자리이다. (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

山水는 정신의 긴장을 풀어서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진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좋으면 경제적 여건이 나쁜 곳이 많으니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물이 2~3십리 거리에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가서 놀 수 있다면 가히 오래 이을 방법이 된다 (팔역가거지) (八域可居誌)..

(7) 살지 못할 곳(避忌)

살지 못할 9곳. 집 입구 부딪치는 데에 해당하는 곳, 옛 종교건물(寺廟祠社) 대장간의 곳, 초목이 살지 않는 곳, 군의 주둔지나 싸움터, 물이 흐르는데 바로 해당하는 곳, 산마루가 부딪는 곳, 큰 성문의 입구, 감옥 문을 대(對)하는 곳 여러 개울 모으는 입구, 등이 있다

(거가필용 (居家必用))

꺼려야 할 6가지와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옛길, 서낭당(靈壇) 神殿앞, 佛殿뒤, 논, (爨竈) 했던 장소 6곳. 祭壇 위 없어진 자리, 대장간(碓房), 기름집(油坊), 무너진 무덤, 돌이 끊어지고 동강 (童岡) 한 곳, 산이 부딪치고 물이 가르는 곳, 길이 교차하는 서낭당의 사이 깊이 못과 굴의 근처, 등 10곳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5가지 살지 못할 곳(五箭地)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바람이니, 산이나 언덕 등마루의 입이 빠른 화살처럼 바로 門에 바람부는 것, 둘째는 물이니, 급한 물살이나 폭포등의 돌에 부딪쳐서 그 소리가 천둥 같으며 밤낮으로 쉬지 않는 것. 셋째는 흙이니, 굳고타고 소금기 있는 사막같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샘과 물이 이루지 못하며 독벌레가 우굴거리는 곳. 넷째는 돌이니, 층암 절벽과 날카로운 봉우리, 칼날 같고 뼈를 드러낸 듯한 기암이 마치 浮圖같은 곳. 끝으로 나무이니 숲이 지나치게 울창해서 하늘을 가리우고 넝쿨이 드리워서 음침하기가 빈 묘 사이 같은 곳. 이런 곳은 모두 사는 이를 상하게 한다. 요컨데 사람은 氣象이 밝고 形勢가 너르며 토지가 비옥하고 샘은 달며 돌은 깨끗한 곳에 살아야 가장 좋다. (규차지 (睽車志))

기타 조심할 곳은 다음과 같다. 큰 산 기슭에 너무 가까우면 사태의 걱정이 있고 강과 바다에 바로 임하면 홍수와 해일의 우려가 있다. 먹는 물과 땅에 의한 풍토병이 있는 곳, 풀이 자라지 않는 곳, 호랑이가 다니는 곳, 도적이 출몰하는 시골은 모두 살 곳이 못된다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 일반적 사항들이 정리되며, 정신적인 것을 제외한 물리적 요소는 근대 서구의 건축술에서도 주장되는 바와 같다.

2. 집 짓기(營治)

내용의 대체는 山林經濟에 따르고 있으나 그것을 보다 체계 있게 조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앞의 터잡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저술을 인용하여 그 인식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다만 擇里志에서는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俗信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 점은 오히려 山林經濟보다 강화된 느낌이다. 그러나 山林經濟가 다분히 비합리적 요소를 거리낌없이 기

술한데 반해 여기에서는 이런 점은 많이 제거되며, 민중들의 사회사상으로 널리 팽배했던 양택론 (陽宅論)의 도식적 해석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듯 싶다.

(1) 터닦기

새로 집터를 잡을 경우 산이 오래도록 거칠고 수목이 울창하면 마땅히 槪況法을 써서 잘라내야 한다. 3년 뒤에 뿌리가 썩으면 파낼 것이나 만약 3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뿌리 둘레를 2~3자 깊이로 파대서 서린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하여간 살지 못하게 했다가 이듬해 평탄하게 하는 바, 힘을 허비하게 된다. 별목은 음 7월부터 음 10월까지가 적기이나, 소나무와 편백은 구조체의 재목이고 갈참나무와 가죽나무는 외양간, 돼지우리, 방앗간, 뒷간의 용도이며 오등, 느릅, 느티나무 기물은 만드는데 알맞다. (금화경독기 (金華耕讀記))

터를 팔때(開基)는 주인이 반드시 地運나이 운세를 가리고 좋은날 밤중에 정성스레 술, 과일, 포, 소금, 향, 초를 준비해서 제사는 갖추어 土地의 神에게 고해야하는 바 땅을 파서 깊이 깨끗한 흙을 열고 반드시 생 땅을 본 뒤에 그친다. 혹 나무뿌리, 사람모발 및 다른 더러운 물건이 있으면 다 제거한다. 생 땅 위는 흙의 성품(土性)이 있으니 더부룩한 곳은 반드시 아래에 묻혀진 것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산골짜기의 穴은 산 줄기(龍脈)가 가늘고 局을 맺는 것이 적으므로 굴착하는 것은 生氣를 상하게 하여 의당치 않다. 평지의 집은 줄기(龍)의 기운이 왕성하고 局을 맺는 것도 크므로 사소한 굴착은 무방하다. 이런 곳은 陽氣가 잠기는 까닭이다. 형상이(砂) 뾰족하고 날카로와 방해하는게 있다면 마땅히 제거해도 좋다. 혹은 주변에 부족한 형상이 있다면 긴 걸 마른게 질 하여 짧은 걸 북돋고 높은 걸 호미질하여 낮은 결 더해서 마치 맞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딴 흙(客土)이라 하더라도 공력이 法에 맞으면 하늘이 만든 거와 같이 오랜 뒤에는 자연과 서로 응한다.

(2) 세우기

①살림집

집의 向은 남쪽이 제일이고 동쪽이 다음이며 북쪽이 끝이다.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니 서쪽문은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가보 (傳家寶))

사람이 사는 방은 반드시 조밀해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해야 한다(居家必用). 사람이 눕는 방은 마땅히 환하고 깨끗해야 하니 환하면 영령(靈氣)한 기운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묵은 기운을 받는다. 기가 어지러운 집은 하는바가 이루질 못할 것이다(居家必用).

사는 집은 화려해서는 안 되니,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스럽게 하는 근심의 근원이다. 다만 집은 우아하며 정갈해야한다(거가필용) (居家必用)..

집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말아야하니, 높으면 밝음이 지나쳐서 魄을 상하게 하며 낮으면 어둠이 많아서 魂을 상하게 한다. 魂이란 陽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상승하는 것이고 魄이란 陰으로서 몸에 남아 귀신이 되는 것이다. 진실로 밝음과 어둠이 균형을 잃으면 질병이 생긴다. 방을 꾸밀 때는 창호를 넓게 할 것이나 만약 네 벽이 꽉 막히면 끝내 귀신의 거처가 된다. (산림경제보 (山林經濟補))

집지을 때의 주의할 점은 다음 같은 것이 있다. 짐은 東을 채우고 西쪽을 비워야 한다. 집에 노마님이 없으면 西쪽은 있는데 東쪽이 없는 것이고 짐에 노대감이 없으면 집안(宅)을 무너뜨려 집에 머무는 것이니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집안의 숲이 날로 새로우매 사람의 장래가 밝고, 짐을 지을 제 기둥이 반이면 사람이 흩어지고 주인이 없으며, 간사이가 홀수를 이루면 가만히 衣食이 길러진다. 동쪽을 접해 짐을 지으매 3년에 한번은 곡소리가 들린다. 서까래를 걸치고 지붕을 덮을 적에 기둥머리나 보머리를 부딪쳐서는 안 되니 이것은 적은

것이 큰 것을 누르는 격이다. 집을 지을 적에 절대로 꺼리는 것은 담장과 바깥 대문을 먼저 짓는 것이다.

집을 세울 때 대목을 단속하여 나무붓(木筆)을 기둥 밑에 두지 않도록 한다. 또한 나무를 거꾸로 하여 기둥을 쓰지 않도록 한다. 집의 뼈대의 간 수가 쌍이 되지 않도록 하며 홀수가 되도록 한다. 처마끝의 물이 서로 쏘지 않게 한다. 주인에게 나쁘다. 안채가 바깥채에 들치면 바깥사람이 죽고 바깥채가 안채에 들치면 안사람이 당한다. 집안·밖의 처마는 넓어야 하며 좁아서는 안된다. 비낀 비가 벽을 치면 집에 질병이 많다. 바람이 부딪치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으며 공공건물에 비가 새면 신부가 좋지 않다. 대들보가 치우치면 집에 시비가 많고 지붕물매가 기울면 도박이 꽃핀다. 기와가 마루대를 옮기면 자손이 파리하다. 무릇 기둥 밑둥이 하방머리 아래에 있으면 좋지만 반대이면 주인에게 대단히 나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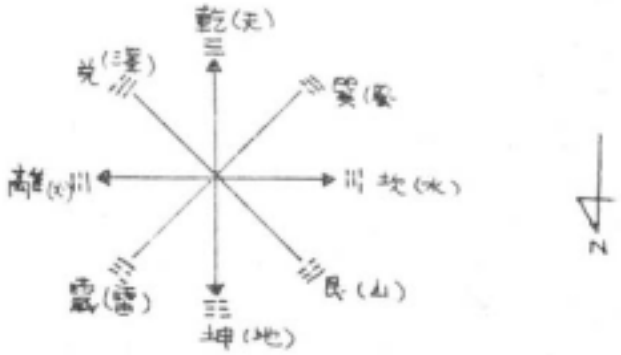
살림집에 다락을 지으면, 길머리에 가까이 말아야 한다. 낮으면 길하고 높으면 흉하다. 살림집의 대청 뒤에는 거북머리를(龜頭堂) 만들면 안된다. 그림방(畵堂)은 짝수를 써야만 안집이 화목하다. 개인집의 대청은 넓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홀수이어야 한다. 대청 위의 홑 마루대는 안사람의 목소리를 높인다. 대청이 있고 구들이 없으면 고독한 과부가 대적하기 어렵다. 남쪽 대청이 서쪽 건물에 연결되면 세월마다 걱정이다. 방문은 正對해서는 안되며 천장은 그 방 사람의 빈번한 재앙을 담당한다. 부엌과 방문과 방문이 서로 對해서는 안되며 집의 문은 구설수와 병환을 담당한다. 뽕나무는 집안 나무로 쓰면 안되고 죽은 나무로 대들보를 해서는 안된다.(거가필용 (居家必用))

집을 지을 적에 그 모양이 日, 月, 口와같이 吉한 모양이면 좋고 工과 尸자와 같으면 불길하다. 집의 간사이는 반드시 홀수를 써야 좋으니, 1칸, 3칸 등과 같다. 기둥의 척수와 서까래를 펼적에는 홀수를 써야 된다. 두 집은 서로 양벽을 맞대는 것은 불가하니 창을 대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모름지기 한 쌍에 하나이어야 한다. 짐에 동쪽이 없거나 혹 북, 남, 서쪽이 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 새집의 양 머리가 작은 집을 접한 것 같으면 나쁘다, 기둥이 헛되이 달리고 대들보가 치우치며 마루대가 기울거나 枋이 썩고 기둥이 쪼개지면 나쁘다, 집의 앞뒤가 낮고 가운데 집이 높게 지었거나, 사방의 물이 돌아가지 못하고 혹은 집 뒤의 작은집 3~5가 서로 쫓아 다니는 것, 지붕 마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부딪고 또 뒤를 쏘는 것, 부서진 집이 바로 앞에 있거나 마루대가 부러지고 기와가 흩어지는 것 모두가 좋지 않다.

집은 부재는 구부러진 것, 벌레먹은 것, 자연히 죽은 나무, 마른 뽕나무를 모두 꺼린다. 벼락을 맞은 나무, 단풍, 대추나무도 꺼린다. 특히 祠宇, 寺刹, 公廨를 짓다가 남은 나무, 배를 만들다 남은 나무, 神樹와 사당나무(社木) 및 금수가 깃들었던 나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② 문과 길(門路)

건곤간태(乾坤艮兌)를 향하는 4가지 집은 감(坎), 리(离), 진(震), 손(巽)의 방위로 문을 내면 좋지 않으며 감(坎), 리(离), 진(震), 손(巽)을 향하는 4가지 집은 건(乾), 곤(坤), 간(艮), 태(兌)의 방위로 문을 내는 것을 꺼린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둘이서 짝한 벽에 문이 면할 경우 크기가 같아야지 한쪽이 크면 좋지 않다(거가필용, 居家必用). 문이 벽보다 높으면 관재수가 많으며 문이 허좌(虛坐)로 내면 재난을 부른다. 뒷간이 대문을 對하면 잔병이 그치질않고 창고의 입구가 문을 향하면 집이 물러나고 병을 얻는다. 방아 돌이 문에 있으면 집이 담밖으로 나가고 문앞에 바로 집이면 집안이 남는 곡식이 없다. 문 입구에 물구덩은 집에 무너지고 외롭다. 큰나무가 문에 있으면 전염병을 부른다. 담장머리에 문이 부딪치면 사람 입살에 오른다. 교차하는 길목에 끼인 대문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 바른 길이 바로 문에 부딪치면 집에 노인이 없다. 대문을 향해 물이 쏘아지면(수사, 水射) 집안은 흩어지고 사람은 귀머거리가 된다. 종교 건물(신사, 神社)가 문을 대(對)하면 병이 잦다. 문안에서 물이 나오면 재산은 흩어진다. 문이 우물물에 부딪치면 집에 귀신을 부른다. 정문(正門) 앞에는 버드나무를 심지마라. 대문 좌우에 신당(神堂)을 모시는 것은 3년에 한번 곡을 한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면을 향해 똑바로 오는 길을 충파(衝破)라 하니(불길, 不吉) 반드시 서리고 굴려야(전곡, 轉曲)해야 한다. 만약 집앞 물이 왼쪽으로 엎어졌을 경우 오른쪽을 따라 들어오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로 꺼린다. 길이 냇가(청룡, 青龍)을 끼고 오면 좋고 산마루(백호, 白虎)를 따라오면 나쁘다. 땅의 흐름 지리(地理)에서 네가지 짐승(청룡-青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의 등성이 위에 십(十)자 모양의 김과 그 중심인 명당(明堂) 가운데 정(井)자 모양을 모두 꺼린다. 두 길이 가로로 일직선이면 나쁘다.

사방 길이 집을 에워싸면 나쁘니 그 증험이 가장 현저하다(고사촬요, 故事撮要).

건(乾) 방위의 산에서 간(艮)손(巽)과 곤(坤)신(申)위의 교차로는 나쁘다. 집의 문과 길은 들어오는 용(龍)과 들어오는 물을 여는 걸 요점으로 하는 바 산을 맞이하면서 물에 나아가는 것이 좋으며 다시 길을 거꾸로 하여 우뚝하게 아름다운 데로 행한다. 문 앞길이 물이 나가는 방위로 있으면 나쁘다. 산과 물이 청룡(青龍)의 방위를 쫓아오면 의당히 왼쪽을 향해 올래(문로, 門路)를 낼 것이고 산과 물이 백호(白虎) 방위를 쫓아오면 의당히 오른쪽을 향해 올래를 낼 것이다. 만약 물을 향하고 흘러가는(류, 流) 방위를 향해 올래를 내면 나쁘다(양택길흉론, 陽宅吉凶論).

올래가 굽어서 들어오면 좋고 서남쪽에 큰 길이 있으면 길(吉)하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올래가 똑바로 면전에 들어오는 것이며 천(川)자 모양, 정(井)자 모양의 집도 나쁘다. 혹은 문이 사방길에 임하고 두 길이 문을 끼며 문 앞의 교차로와 혹은 두 길이 가로로 일직선인

것은 모두 나쁘다.

③ 부대 시설물

토담의 모양이 둥근 활꼴이면 부(富)를 상징하고 외겹 한 봉우리와 두겹 두 봉우리는 곡식이 많다. 만약 두르고 둘렀으며 낮으면 좋지않다. 넝쿨 나무가 서로 얽혔으면 재난이 난다. 담장머리에 가리는 덮개가 없거나 모양이 관(棺)의 나무 같거나 대문에 부딪거나 혹 기울어지고 엎어졌으며, 길을 끼고 서로 더해진 것은 모두 나쁘다. 절대로 대문 문장보다 낮은 것을 꺼린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울바자(리, 籬)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땅에 사방으로 돌려 깊이·너비 2자를 파낸다. 대추(산조, 酸棗)가 익을 때를 기다려서 씨를 많이 거두고 구덩이 가운데 심는다. 싹이 낳은 뒤 보호하고 꺾지 않는다. 1년 뒤에 높이 3자이면 이듬해 봄에 빗긴 가지와 가시를 잘라낸다. 겨울을 지낸 다음 울바자를 짜니 드디어 끼고 묶은게 의당하다. 떠 이듬해에는 다시 높아지니 도적을 막을만하다. (□선신은서, □仙神隱書)

창고는 마당에 면해야 하며 물이 창고문을 향해 들어오면 좋다. 평상시 거(居)할적에 창문을 열면 5~6장(丈)의 거리에 처해서 않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집의 향은 甲, 丙, 庚, 壬(갑,병,경,임) 4가지 방위이어야 한다.

방앗간은 장소가 그르면 사람이 병들어 병상을 떠나지 않으니 동북(東北)쪽의 간지(艮地) 및 인해(寅亥) 땅이 좋으며 나머지는 좋지 않다(거가필용, 居家必用). 운명에 근본한 (본명, 本命) 생왕육(生旺六)과 인간해(寅艮亥)방위가 의당하나 寅, 卯, 辰, 巳(인,묘,진,사)는 좋으며 午, 未, 申, 酉, 戌, 亥(오,미,신,유,술,해) 방위는 좋지 않다. 방아에 머리는 집집마다 불안한게 있으니 방아를 거꾸로 향하지 말것이며 밖으로나 빗껴 향하고 않아야 좋다(산림경제, 山林經濟). 오는 용(龍)이 뒤에 있으면 방아는 살림집 앞이 의당하고 용(龍)이 앞으로 오면 방아는 살림집 뒤로 한다. 용(龍)이 오른쪽으로 오면 방아는 살림집 왼쪽으로,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두는게 좋다. 방아머리가 밖을 향하고 사람이 뒤를 따라 밟으면 가(可)하다. 방아머리가 집을 향하면 크게 불길(不吉)하다. 또 방아가 청룡(青龍)이나 백호(白虎)의 맥(脈) 위에 있는 것을 꺼린다. 무릇 용광로, 기름짜기, 물레방아, 연자방아는 모두 동물에 매이는 것이므로 물구(수구, 水口)에 두는게 의당하나 그 배후가 백호(白虎) 머리 및 주작(朱雀), 현무(玄武) 위이면 지어서는 안된다.

뒷간은 서북방(西北方)과 서방(西方)을 꺼린다(산림경제, 山林經濟). 또한 寅, 卯, 木, 辰, 巳, 午(인,묘,목,진,사,오)방위가 좋고 申, 酉 戌, 亥, 子, 丑(신,서,무,해,자,축) 방위는 모두 나쁘다(거가필용, 居家必用).

잿간은 서(西)방위가 곡식을 주관하므로 좋으나 점점 떨간 겉으로 두는게 가(可)한다. 뜨거운 재는 불이 나기 쉬우므로 살림채에 가까워서는 안된다.

(3) 나무심기

나무를 심어서 회상법(回象法)을 대신할 수 있으니 동쪽에 복숭아와 버드나무, 남쪽에 매화와 대추나무, 서쪽에 석류나무, 북쪽에 벚나무와 은행나무는 각각 흐르는 물(유수, 流水), 긴 길(장도, 長途), 연못(오지,汚池), 언덕(구릉, 邱陵)을 대신해서 심는다(거가필용, 居家必用).

주택은 사방으로 대나무 등의 푸르고 무성한 나무를 짝해야만이 재물이 모인다. 집에 나무가 없이 벌거숭이인 것은 의당하지 않으니 수목은 깊고 무성하며 그 기상을 두껍게 해야 한다. 냇가에 나무를 줄맞춰 심는 것은 수재(水災)를 방비하기 위함이다. 나무가 집을 향하려고 하면 좋고 집을 등지려고 하면 나쁘다(거가필용, 居家必用).

집 동쪽에 은행나무, 북쪽에 오얏나무, 서쪽에 복숭아, 버드나무는 모두 나쁘다, 동쪽에 버드나무, 서쪽에 대추나무, 중문(中門)에 느티나무, 집뒤에 느릅나무(유, 楡)는 좋다. 마당 앞에는 오동나무를 심지 말 것이며 집안에는 파초를 많이 심는 것도 나쁘다. 방 앞에 석류나무는 길(吉)하다. 문앞에 쌍으로 선 대추 나무는 기쁘며 문 앞의 푸른 풀은 근심이 많다. 문밖의 드리운 버드나무는 방해가 있고, 집 안에 뽕, 무궁화 복숭아나무는 끝내 연안하지 못한다(지리신서, 地理新書).

생각했던 한 언덕, 한 구덩이의 땅을 얻었더라도 먼저 나무 심는 것을 급하게 해야 한다. 집을 짓고 농사짓는 등의 일은 수 십년을 경영한 뒤에 집안을 이루어서 과실을 먹고 소나무를 심으며 음(陰)덕을 가지는 것이니, 지혜의 한계와 재력의 짧음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무를 빨리 심고 김멜 뿐이다(금화경독기, 金華耕讀記).

(4) 토목공사

① 우물

살림집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므로 여러개의 우물이 있는게 좋다. 맛이 비록 나빠도 무방하니 그 흐름을 끌기도 하며 못에 대기도 하고 혹은 독 우물을 만들기고 한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우물을 파는데는 많은 돈이 쓰이므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물 자리를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밤 기운이 명랑한 때를 기다려서 그릇에 물을 담아 여러 곳에 두고 별빛과 조응한 바를 보고 어느 곳이든 가장 크고 밝으면 반드시 맛있는 샘이 있다. 시험해서 여러번 호험을 얻었다(계신잡식, 癸辛雜識). 높은 곳에 우물을 팔 때는 샘 근원의 있는 바를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구하는 법은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물 기운을 시험하는 것으로 밤에는 수기(水氣)가 항상 올라가고 해가 뜨면 곧 그치는 성질을 이용한다. 지금 수맥(水脈)이 있는 곳을 알고져 할 경우 우선 어떠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서 하늘이 밝고 깨끗한 날, 사람마다 구덩이의 지면을 바라보면 연기같은 기운이 떠올라 나오는 것이 수기(水氣)이다. 이곳 아래에 수맥(水脈)이 있다.

둘째는 수기(水氣)가 서리는 것을 시험해보는 법이니, 넓은 들이나 읍성(邑城)의 가운데 방은 할 수 있지만 곁의 기운인 경우는 불가(不可)하다. 땅을 깊이 3자, 너비·길이는 적당히 파고서, 구리나 주석 접시 하나를 깨끗한 기름으로 두루 잘 닦은 다음 구덩이에 높이 1~2 촌(寸)나무를 꽂은 위에 덮어놓는다. 접시 위에 마른 풀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하루를 넘긴 다음, 열어보고 접시 밑에 물방울이 맺었으면 그 아래 샘이 있다.

세 번째는 항아리 시험이니 가까이에 옹기집이 있을 경우에 쓴다. 작은 항아리 하나를 앞의 구리접시 법과 같이 써서 수기(水氣)가 있으면 병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니 그 아래가 샘이다. 오기가 없는 데에서는 토기로써 대신한다.

네 번째는 크게 땅을 파서 시험하는 것이니 앞서와 같이 하되 그 밑에 횃불을 놓아서 연기가 상승하면서 꿈틀거리고 굴르면 이것은 수기(水氣)의 맺힌 바이니 그 아래 샘이 있다. 바로 올라가는 것은 물이 없다(태서수법, 泰西水法). 초목이 울창한 곳에 샘이 매번 숨어 있으니 우물을 팔만한 곳이다(문기록, 聞奇錄).

북쪽(자지, 子地)에 우물을 파면 사람이 떨어져 죽고(음양서, 陰陽書) 동쪽(묘, 卯) 우물은 물이 향기롭지 못한다(거가필용, 居家必用). 寅, 卯, 辰, 巳, 午(인,묘,진,사,오)방위의 우물은 좋은 일이 많으며 未, 申, 戌, 丑, 子(미,신,무,축,자) 물은 가족에게 나쁜 일이 많다(양택길흉론, 陽宅向凶論). 방(당, 堂) 앞에는 우물을 파지 않으며 부뚜막 가에 우물은 해마다 헛되이 소모된다. 우물과 부뚜막이 마주보면 집안이 어지럽다(양택길흉론, 陽宅吉凶論).

우물을 팔때는 본산(本山)의 생왕(生旺) 방위를 취해야 길하다. 우물은 쌍으로 이루는게 의당하니 크게 눈빛을 발한다. 우물은 의당히 깊이가 2.7자 이상이어야 하며 쌓은 돌은 완전히 덮어서 15단은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낮으면 나쁘다, 우물 길이 기울어진 것, 좁은 것, 등이 튕긴 것, 막힌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무너진 것, 우물벽이 빠지고 돌출한 것 등을 대단히 꺼린다. 우물이 똑바로 길어서 샘이 새는 것 같이 그 소리가 뚝뚝 나는 것은 나쁘다. 혹은 물이 갈 바가 없어서 다리를 지나서 행하거나 형상이 소멍에 같은 것, 떠 있는 달 같은 것은 좋지 않다.

② 연못과 하수

못이 살림집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뒤쪽에 있는걸 모두 꺼리며 대문 앞에 못이 3개 있는 것을 절대 싫어한다. 집 앞 뒤에 입이 둘 있는 못 모양이 돼지 밥통이나 허리 같은 것, 문앞의 쌍으로 된 연못이 곡(哭)자 머로 같은 것, 서쪽에 못이 있는 걸 백호(白虎)가 입을 열었다고 하니, 모두 꺼린다. 집 앞에 밝게 놓인 둥근 연못에 산물(활수, 活水)를 끌어 통하면 좋다. 물이 혼탁하면 좋지 않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집북쪽에 우영(원, 園)이 있어서 과실수를 심고 집 좌우에는 텃밭이 있어서 채소를 심으며 그 남쪽 한 면은 비워서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적은 상하 못을 판다. 적은 못에는 연꽃을 심고 큰 것에는 고기를 기른다(고사십이집, 攷事十二集). 물이 깨끗하면 수초를 심어 고기를 기르고 탁하면 연꽃을 심는다(사의, 事宜).

국(局) 안에 둔벙이 있으면 둥글게 뚝을 쌓고 두루 작약과 대추를 심어서 제방을 보호한다. 만약 산물(활수, 活水)이 흐르면 수초를 심어서 고기를 기르고 더러우면 연꽃을 심는다. 낮은 곳에는 왕골과 갈대를 많이 심으며, 한 쪽을 나누어 끌어 아래로 흘러서 논과 미나리깡에 물을 댄다(증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

하수도와 하수구(구거, 溝渠)를 잘 통하게 해야만 집안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서 역병이 생기지 않는다(거가필용, 居家必用).

③ 저수지

높은 곳에는 의당히 저수지(수고, 水庫)를 만들어야 한다. 우물을 파고 강물을 끌어서 지면 아래 물을 밭 가운데 끄는 것도 족하지만 첩첩 산골 골짜기의 빠른 물을 기구(용구, 用器)없이 끌어쓰는 것은 그 이익이 더욱 크다. 산에 의지해서 땅을 파고 못을 만들어 일찍이 준비하더라도 막상 몇일만 비가 안오면 거북이 등처럼 터져버린다. 반면 저수지는 눈・빗물을 모아 궁할 때 쓰니 이 같은 계교가 없다.

사람이 물을 저장하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과 같으니 곡식은 붉게 썩는 걸 방지하고 물은 새는 걸 방지해야 하는 바 그 계획의 정신은 대략 서로 같다. 이 때문에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대체로 집마다 3년의 비축 곡식이 있는 것과 같다. 큰 한발을 만나거나 강적이 지나더라도 어려울 게 없다. 또한 위쪽에 있는 물은 땅속의 물보다 넓게, 오래, 멀리 가므로 성에 사는 사람도 강과 샘물을 먹게 되니 오히려 시골 사람보다 낫다(태서수법, 泰西水法).

Ⅲ. 맺음

서유구(徐有榘)의 상택지(相宅志)는 18세기 전후의 건축론(建築論)을 종합하여 차례를 세워서 체계 있게 정리했다고 하겠다. 내용은 앞에선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저술을 인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짜임새는 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주축으로 하였으며 원문과 비교해 볼 경우 거의 같게 인용하였다. 그러나 완전하게 같지는 않으며 인용부분의 개념 정리에서 작가의 생각을 십분 반영하였다.

집터잡기(점기(占基))의 내용의 체계는 팔역가거지(八域可居誌)(택리지(擇里志))와 거의 같으나 서술의 내용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 특히 원래 지리조(地理條)에 있던 토색(土色)을 여기서는 수토조(水土條)로 독립시키고 택리지(擇里志)에서는 없던 피기조(避忌條)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지리조(地理條)의 내용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차례는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서도 논방위(論方位), 수응(水應), 방수(放水), 사응(砂應))등 풍수가(風水家)의 상징적 용어와 개념이 삽입되고 있다.

집 짓기(영치(營治))의 내용은 대략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따르고 있지만 전자가 체계 없이 쓰여진데 비해서 여기서는 개황(開荒), 종식(種植), 건치(建置), 정지(井池), 구거(溝渠)로 구분하여 체계를 세우고 있다. 특히 토목공사를 강조하여 하수구거(下水溝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저수지(수고(水庫))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작위수고(作爲水庫)는 율령가(率令家)로 유삼년지축(有三年之畜)하니, (영치(營治)로 논고지의작(論高地宜作)<수고(水庫)>) 저수지를 만들면 곡식 3년하지를 비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시 발달한 벼의 이앙법(移秧法)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수리(水利) 문제가 더욱 절실해졌음을 표현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점기(占基) 쪽에만 치우친 팔거가거지(八居可居志)를 보완하여 영치(營治)조를 결합시키면서 상택(相宅)에 대한 완전한 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민중들의 바램인 점복(占卜)적인 요소를 택리지(擇里志)는 완전 배격하였고 산림경제(山林經濟)는 너무 깊게 의존한데 비해서 이것은 그것조차도 합리적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예를 들면 속신(俗信)적 요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피기(避忌)조에서 조차 오히려 현대 과학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시문방(柴門方)이나 풍사(風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方位)에 관계되는 부분만이 상징적이며 선험적 요소가 가미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택론(陽宅論)이나 풍수지리(風水地理) 서적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그것에 투입하는데 비하면 오히려 그것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표현했다 하겠다.

18세기 전후는 증가된 생산력(生産力)에 힘입어서 인민의 건축 생산 활동이 급증하며 건축 규모도 커진다. 이에 비해 건축론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제한되는 전문 장인(匠人)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 양택론(陽宅論)류의 저술들 역시 일반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상징적 언어가 쓰여지며 유학자(儒學者)들의 안목으로는 비합리적인 주술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을 통합하여 비합리적 내용은 배재하고 대신 체계를 세워서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당시의 양택론(陽宅論)은 대개가 중국책으로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건축론에 대한 체제의 정립은 시급한 사회적 요구이었다. 이것은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였다.

내용 가운데는 현대 발달된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고 유치한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전혀 바탕을 달리한 이론의 전개로 말미암아 새겨들을 만한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주로 사람의 인간성(人間性)(심성(心性))에 대한 문제이다. 사람은 결국 먹고 사는 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간 품성(인간성(人間性))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인간 생존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며 이것은 주어진 자연환경 내지는 사회적 환경(이인(里仁))에 크게 영향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이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물리적 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잊기 쉬운 인간성(人間性) 회복의 방법에 대한 한 방책을 제시하였다고

믿는다.

여기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 것은 당시 민중들의 건축 사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양택론(陽宅論)과의 비교, 또한 중국의 양택론(陽宅論) 혹은 우리와는 별 관계를 갖지 못하지만 일본의 가상학(家相學)과의 비교・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통 마을이나 주택(住宅)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정리된 건축론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를 모두 수렴하지 못하며 당시의 사회적 과제가 부각되고 대신 당시 당연히 이루어 졌던 내용은 오히려 제외되기가 쉽기 때문이다.